'올림픽 브레이크' 후 요동치는 승부

롯데·KIA 상승세…역대급 뒤집기 오나

각각 승률 0.667…장기 휴식 후 진격
베이징올림픽·팔렘방AG때와 닮은꼴
한화·LG는 국제대회 후 추락 흑역사
남은 경기 많아 '중위권 대혼전' 예고

한 달간의 올림픽 브레이크. 마냥 손놓고 쉰 팀은 없다. 이 기간 탄탄히 재정비를 마친 팀들은 상승세를 누릴 수 있다. 2008베이징올림픽,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AG)의 사례가 증명한다. KBO는 2022항저우AG부터 정규시즌 중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분간 마지막이 될 장기간의 브레이크가 끝난 만큼 올 시즌 후반기 순위경쟁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구단 역사상 최고 기록-최악의 시작

베이징올림픽 당시 KBO리그는 8월 1일부터 25일간 휴식기를 보냈다. 전체 504경기 중 4분의 3 가까운 383경기(76.0%)를 소화한 시점이었다.

제리 로이스터 감독의 첫해였던 롯데는 기분 좋은 4연승으로 올림픽 브레이크를 맞았다.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7연승을 더해 총 11연승. 여전히 깨지지 않는 롯데 구단 역사상 최다기록이다. 1패 후 7연승, 다시 1패 후 3연승. 이 기간 21승2패의 압도적 흐름이었다. 롯데는 휴식기 이후 승률 0.656(21승11패)을 기록해 정규시즌을 3위로 마쳤다. 올림픽 이전까지 5위 삼성 라이온즈에 0.5경기차로 앞선 불안한 4위였으나, 이 때 격차를 확 벌렸다.

반면 올림픽 이전까지 102경기에서 56승46패로 3위였던 한화 이글스는 대회 후 거짓말처럼 힘을 잃었다. 24경기에서 8승16패(승률 0.333). 이 때 시작된 암흑기가 2018년 가을야구 전까지 꼬박 10년간 이어졌으니 구단 역사에도 아픈 기억이다.

●20%의 기회면 충분한 반전!

2014인천AG 브레이크는 순위싸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전체 576경기 중 90% 넘는 525경기(91.1%)를 치른 채 대회를 맞이했고, 대회 후에는 잔여경기 편성의 느낌이 강했다. 결국 대회 전후 순위표 변동 없이 시즌이 끝났다.

2018AG는 달랐다. 전체 569경기(79.0%)를 치른 채 리그가 멈췄으니, 20%의 일정에선 변동폭이 충분했다. 실제로 브레이크 이전까지 승률 0.464로 8위에 머물렀던 KIA 타이거즈는 이후 19승15패(승률 0.559)를 기록해 5위로 가을야구 막차에 탔다. 반면 브레이크 이전 5위였던 LG 트윈스는 이후 12승16패(승률 0.429)에 머물며 8위로 시즌을 마쳤다. 당시 KIA와 LG는 단 1.5경기차. LG의 브레이크 이후가 두고두고 아쉬웠던 이유다.

2008년 올림픽 브레이크 전후 순위

최종순위	팀	승률	브레이크 이전	브레이크 이후
1	SK	0.659	0.648(1위)	0.686(1위)
2	두산	0.556	0.554(2위)	0.559(3위)
3	롯데	0.548	0.511(4위)	0.656(2위)
4	삼성	0.516	0.505(5위)	0.556(4위)
5	한화	0.508	0.549(3위)	0.333(8위)
6	KIA	0.452	0.485(6위)	0.345(6위)
7	우리	0.397	0.419(7위)	0.333(7위)
8	LG	0.365	0.337(8위)	0.464(5위)

2018년 아시안게임 브레이크 전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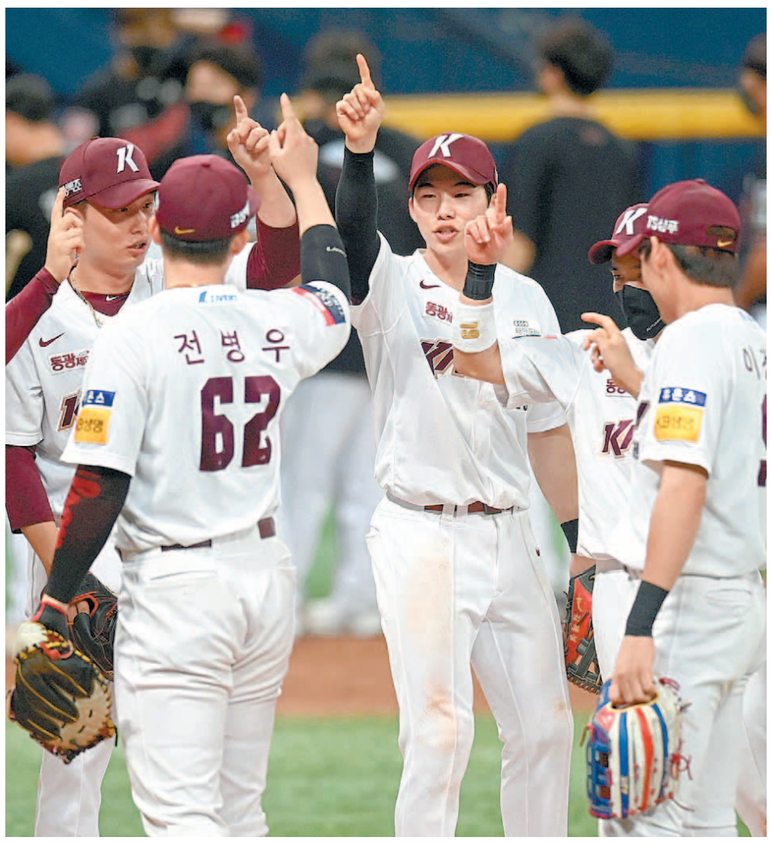
최종순위	팀	승률	브레이크 이전	브레이크 이후
1	SK	0.545	0.559(2위)	0.500(6위)
2	두산	0.646	0.646(1위)	0.645(1위)
3	한화	0.535	0.544(3위)	0.500(7위)
4	넥센	0.521	0.517(4위)	0.538(3위)
5	KIA	0.486	0.464(8위)	0.559(2위)
6	삼성	0.486	0.478(6위)	0.519(4위)
7	롯데	0.479	0.472(7위)	0.500(5위)
8	LG	0.476	0.487(5위)	0.429(8위)
9	KT	0.418	0.423(9위)	0.400(9위)
10	NC	0.406	0.409(10위)	0.393(10위)

●사실상 남은 절반, 역대급 변화 예상

올해는 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반기까지 전체 384경기(53.3%)를 치렀다. 유독 치열한 중위권 다툼이 펼쳐지던 가운데 사실상 반환점을 막 돈 시점에서 올림픽을 맞았다. 여기에 방역수칙 위반부터 음주운전, 대마초 반입 등으로 각 팀의 주요 전력들에 변동이 크다.

실제로 전력약화가 우려됐던 키움 히어로즈는 후반기 첫 단추를 5승1패로 깔끔하게 끼웠다. 전반기 8위 롯데(4승2패)와 9위 KIA(2승2무1패) 역시 승률 0.667의 상승세. 물론 후반기 시작점에 불과하다. 앞선 브레이크 기간을 살펴봐도 선두 자리가 요동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중위권 팀들에는 모두 기회가 열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흥미로운 후반기가 이제 막 시작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1개월에 이르렀던 도쿄올림픽 브레이크는 KBO리그 후반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을 전후로는 희비가 엇갈린 팀들이 나왔다. 후반기 첫 주를 5승1패로 마친 키움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고척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쓰쓰고 피츠버그행…박효준 입지에 영향?

일본인 외야수 쓰쓰고 요시토모(30)가 16일(한국시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계약했다. 쓰쓰고는 포스팅 시스템(비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지난해 탬파베이 레이스에 입단했으나 타율 0.197, 8홈런, 24타점에 그친 뒤 올해도 타율 0.167로 부진하던 끝에 5월 12일 지명양도로 방출됐다. 곧 LA 다저스로 이적했으나 마이너리그 43경기에서 타율 0.257, 10홈런, 32타점을 기록한 뒤 15일 방출 통보를 받았다. 하루 만에 새 팀을 찾은 쓰쓰고가 향후 다시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는다면 피츠버그에서 내·외야 전천후로 기용되고 있는 박효준(25)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박효준은 16일 현재 14경기에서 타율 0.267(45타수 12안타), 1홈런, 5타점을 기록 중이다.

'KBO리그 출신' 애리조나 켈리 확진 판정

KBO리그 출신 메릴 켈리(33·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6일(한국시간) MLB닷컴이 보도했다. 2015~2018년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 소속으로 48승32패, 평균자책점(ERA) 3.86을 기록한 켈리는 2019년 애리조나와 계약하고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다. 올 시즌에는 24경기에서 7승9패, ERA 4.30을 기록하는 한편 메이저리그에서 7번째로 많은 142.1이닝을 소화하며 팀의 기둥투수로 활약해왔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부담감 이긴 'NC 미래' 강태경의 만점 데뷔

15일 1군 한화전 6이닝 2실점 호투
교체때 아버지 강인권 수석과 포옹

"어휴. 솔직히 정말 부담이죠."

2020년 2월,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의 NC 다이노스 스프링캠프에서 만났을 당시 NC 강인권 수석코치(49)의 이야기다. 6년 만에 돌아온 NC. 공교롭게도 아들 강태경(20)이 그해 신인으로 입단해 있었다. 수석코치와 선수로 한솥밥을 먹게 된 부자. 강 수석에게는 적잖은 부담이었다.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터. 이들 모두 부담을 이겨내고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데뷔전에서의 호투, 강태경은 NC가 조금씩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증거다.

강태경은 15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 선발등판해 6이닝 5안타 3삼진 2실점의 퀄리티스타트(QS)로 1군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0-2로 뒤진 7회말 마운드를 내려갔는데, 타선이 뒤늦게 터져 3-3 무승부로 끝나면서 강태경의 패전은 지워졌다.

7회말 한화 선두타자 김태연이 안타를 치자 NC 벤치가 교체를 결정했다. 마운드에 오른 이는 손민한 투수코치와 이동욱 감독이 아닌 강인권 수석이었다. 아버지는 아들과 악수한 뒤 꼭 껴안았다. 아들도 모자를 벗어 화답했다.

NC 강태경

잠실중~배명고를 거친 강태경은 아버지 같은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는 목표로 야구를 해왔고, 2020년 신인드래프트 2차 5라운드로 NC 유니폼을 입었다. 강 수석이 다시 NC 코치로 합류한 시기도 2020년. 아들과 아버지가 새로운 도전에 함께 나선 셈이었다.

경기 후 강 수석은 "야구장에서는 아들이 아닌 다른 선수들과 똑같은 야구선수의 모습으로 보려고 했다. 그래도 평소보다 긴장하고 본 건 사실"이라며 "기특하게도 잘 던져줘서 너무 고맙다. 걱정했던 것보다 차분하게 잘 던졌다. 더 열심히 해 좋은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강태경은 "긴장했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라 즐긴다는 생각으로 던졌다. 아버지가 경기를 앞두고 '씩씩하게 부담 갖지 말고 미트만 보고 던져'라고 해주셨고, 마지막에 마운드에서 '수고했다. 잘했다'고 하셨다. 안아주셨을 때는 기분이 묘하면서 뿌듯하기도 했다"고 돌아봤다. NC의 미래가 감동을 안겨주며 성장하고 있다.

최익래 기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미래가치가 높은 청년창업기업을
폐광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강원랜드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현재 혁신성장유망기업 6개사가 선정되었으며, 총 21개 이상 기업 유치를 목표로 청년기업 발굴·육성과
지역인재양성, 일자리창출, 산업기반 강화를 통해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아티슨앤오션 (주)넥스트온 (주)제우기술 (주)블루모션테크 (주)동남메가텍 (주)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